

국내뉴스

**생산 감소 · 수입 증가...
낙농업계 이중고 심화**

지난해에도 낙농업계가 원유 생산 감소와 수입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생산량은 2015년 216만 8천 톤에서 4.4%가 감소된 207만 톤으로 추정됐다. 분유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감산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와 유업체에서 생산량을 줄인 결과다. 감산이라는 낙농가의 이해와 양보에 분유 재고량 줄이기에 성공했지만 수입이 늘어나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해 유제품 수입량은 시장개방 확대와 관세 하락 등의 이유로 191만 6천 톤으로 집계, 2015년 대비 7.2%가 증가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소비 감소와 수입 증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낙농산업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축산신문 2월 1일]

우유 소비, 치즈에 주목할 때

우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치즈의 소비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소비패턴이 달라짐에 따라 가공용우유의 사용이 서서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지난해 11월 실시한 '우유 유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조사에서 대학생 및 성인여성의 21.1%가 유제품 중 치즈를 선호한다고 응답하며 치즈 선호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로 분석됐다. 특히 치즈의 경우 약 75%의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소비경험이 있다고 밝힐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축산신문 2월 3일]

착유 세척수 무대책에 낙농가 분통

착유 세정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낙농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2019년까지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낙농가들이 2000년대 초반 정부시책으로 보급된 정화시설을 기반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3월까지 강화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장에서 낙농가들이 실제 정화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세척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정화처리업체를 찾기 힘든데다가 기술검증도 어려운 상황이다.

[축산경제 2월 3일]

**[구제역 백신 올바른 접종방법]
냉장보관 후 15~25℃ 상온에서 접종**

방역당국은 전국 우제류 축산농가에 백신을 철저히 접종해 달라며 올바른 접종요령을 제시했다. 백신은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2~8℃의 냉장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얼거나 오랫동안 외부에 방치되면 성분이 손상돼 효능이 저하될 수 있다. 접종 2~3시간 전 15~25℃의 상온에 뒀다가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접종 전엔 기포가 생기지 않게 병을 천천히 위아래로 20회 정도 흔들어서 섞어준다. 개봉한 백신은 즉시 사용해야 한다. 바로 사용하기 어려우면 반드시 냉장보관한 뒤 24시간 이내에 소진한다. 접종량은 소 한 마리당 2ml다. 송아지를 제외한 모든 소는 4~7개월 간격으로 어깨 부위의 근육에 놓는다. 송아지는 생후 2개월령일 때 1차로 놔 준 뒤 4주 후에 2차 접종한다.

[농민신문 2월 10일]

〈초점〉 원유 감산정책의 득과 실

소비부진, 유제품 수입 증가라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낙농업계의 지난해 감산정책은 불가피했다. 그 결과 2015년 내내 2만 톤을 상회하던 분유재고를 매달 줄여 나가는 데 성공했으며, 2016년 11월 1만 800톤으로 절반가량이 감소했다. 반면 소비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올해도 감산정책이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감산으로만 일관하는 정책에 농가들은 지쳐있는 상태다. 특히 출생률 감소,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소비패턴도 보편이 불편한 우유보다는 치즈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축산신문 2월 17일]

백신접종 안정성 논란속 농가에 책임지우는 일 없어야

현행 시·구제역 80% 보상 규정은 축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축산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대상이자 병을 키우는 화근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구제역·AI 확산방지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시가의 80%를 살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발병 농가 지원 기준이 고쳐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젖소의 경우 우유생산량이 감소하는데 이것을 농가들이 감수하면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음에도 농가들이 백신관리를 소홀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세계일보 2월 21일]

해외뉴스

네덜란드, 백신은행에 9개 계통 1천 600만분 비축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인 2001년 방역 정책을 살처분 중심에서 예방접종으로 전환했다. 가축 전염병의 초기 발생단계에서 즉각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백신은행에 9개 계통 1천 600만 회분을 비축해 운영하고 있다. 섬나라라는 특성을 가진 호주는 130여 년 동안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 엄격한 국경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자국에 입국하는 관광객 등이 고기·낙농제품·과일 등 반입금지 품목을 가지고 들어올 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저 220호주달러(27만5천 원)에서 최고 6만 호주달러(7천 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심하면 징역형도 선고한다.

[중부일보 2월 15일]

젖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한다

젖소의 관점에서 낙농 시설을 바라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면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뉴질랜드 낙농산업기관 ‘다이어리NZ(DairyNZ)’가 전했다. 다이어리NZ는 20여 명의 낙농가를 대상으로 젖소의 감각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밀크 스마트(Milk Smart)’ 세미나를 운영 중이다.

세미나에 참석중인 메레이 홀트(Murray Holt) 씨는 “젖소의 관점에서 생각해라”고 당부한다. 그는 차분한 젖소들이 4~14% 더 우유를 생산된다고 농장주들에게 말했다. 더불어 “젖소들은 8km 거리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더 높은 주파수를 들을 수 있다”며 “젖소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stuff 2월 17일]